

20/22

2022 감리회 청년주일 가이드

“다시 세워지는 청년예배”

기독교대한감리회 청년회 전국연합회,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육국

- ／ 언제: 2022년 5월 15일(주일) 주일 예배에서
- ／ 어디서: 청년들을 사랑하는 모든 감리교회에서



기독교대한감리회
청년회 전국연합회

65 Methodist Youth Fellowship of Korea

THE CONTENT

2022 청년주일을 소개합니다! 02

04 청년주일, 이렇게 지켜주세요!

청년예배 세우기 프로젝트! 06

08 연합회 조직, 이렇게 해주세요!

청년주일 표준예배문 10

12 청년주일 표준설교문

감리회 청년회 전국연합회를 소개합니다! 15

2022 감리회 청년주일 격려사

“청년들이여, 예배하는 세대로 일어 서십시오”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육국총무 김두범 목사

창세기 4장 18절에서 24절까지 등장하는 가인의 세대는 인간의 풍요와 세속적인 아름다움, 하나님 없는 물신문화를 이루고 그것을 자랑합니다.

불과 5대를 지나지 않아 가정의 파괴와 음란, 살인죄가 등장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없이 스스로를 보호하고자 거대한 성을 쌓아갑니다.

자아추구, 자아숭배의 어지러운 세상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를 보는 것 같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셋의 세대를 일으키십니다.

셋은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사람, 남자)라 지었는데

원어의 의미는 치료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 재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셋이 아들에게 이런 이름을 붙인 까닭은 교만을 뽐내던

가인의 후손들과 대비되는 신앙을 부각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설 수 없는 무력한 존재임을 인식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셋의 자손들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아벨도 아담과 제사했지만 공식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예배 양식이 시작된 것은 셋의 시대에 이르렀을 때부터입니다.

가인의 후손들이 자기들의 뜻대로 힘으로 살아갈 때 예배자들이 돋보이기 시작했고

세속문화와 경건의 문화가 대조되었습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가인 계열의 족보는 창세기 4장에서 언급된 이후 다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반면,

셋의 계열에서는 노아를 거쳐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구원역사가 이어지게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일으키기 원하는 세대는 예배하는 세대입니다.

오랫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가 무너진 시대에, 청년회 전국연합회에서

‘다시 세워지는 청년예배’라는 주제를 정한 것은 참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자로 세워질 때

감리교회가 살아나고 한국교회의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날 세속화된 이 땅에서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감리회 청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2022 청년주일을 소개합니다!

- / 일시: 2022년 5월 15일(주일)
- / 주제: "다시 세워지는 청년들의 예배"
- / 말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4:24)

God is spirit, and his worshipers must worship in spirit and in truth.

John 4:24



오늘날 우리는 청년들이 사라진 한국교회와 감리교회의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년부흥을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교회와 청년들의 현실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일까요?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제도, 문화적 돌파구들일까요?

부흥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기때,
 사람의 의와 방법이 실패한 자리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는 것,
 그것은 오직 전심으로 드러지는 예배로만 가능합니다.

예배만이 하나님을 만나고 비전을 발견하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예배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킵니다
 예배만이 세속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장악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배만이 청년들이 살길입니다.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는
 코로나로 인한 교회의 암울한 현실이 아니라
 예배를 갈망하는 마음의 실종입니다.

청년주일은 단순히 청년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촉구하는 주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 스스로가 부흥의 주체가 되어 예배자로 일어나는 계기입니다.
 청년주일은 청년들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감리교회가 예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다시 세워지는 청년예배”

4

청년주일, 이렇게 지켜주세요!

1. 2022년 5월 15일(주일) 주일예배를 청년주일로 지켜주세요.

* 청년주일 예배문과 기도문을 사용해주세요.

* 청년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가져주세요.

2. 청년주일 포스터 부착과 광고를 부탁드립니다.

*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청년선교의 중요성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3. 교회마다 청년예배 다시세우기 캠페인에 동참해주세요.

* 청년들이 예배를 통해 함께 일어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뒷 부분 설명 참조)

4. 청년주일 지침서, 포스터, 영상 등 각종 자료를 이용해주세요.

* 각종 자료들은 www.facebook.com/kmcmfkyk 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65기 청년회전국연합회가 큰 꿈을 가지고 일하려 하지만 최근 재정이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청년주일 헌금의 일부(혹은 십분의 일)를 청년회전국연합회에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국연합회로 보내주신 청년선교헌금은 감리교단의 청년예배를 세우고 청년프로그램을 만들며

청년리더들을 양육하는 데 사용될 것이며 후원해주신 교회들에게 잘 보고될 것입니다.

* 보내실 곳 : 우리은행 142-422823-13-001 (기독교대한감리회 청년회전국연합회)



<청년예배 세우기 프로젝트>

/ 교회가 작아서 청년예배를 따로 드리기가 어렵다구요?

웨일즈 부흥운동의 시작은

광부청년 에반 로버츠와 동료들의 작은 기도모임에서 시작했습니다.

주님은 두 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God is spirit, and his worshipers must worship in spirit and in truth.

John 4:24



1. 스티커 붙이기 캠페인

예배가 살아야 청년이 삽니다!
청년이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감리회 청년회전국연합회-

스티커를 교회 곳곳에 붙여주시고 예배를 살리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주세요

2. 감청유튜브 예배 세미나

청년회 전국연합회 유튜브를 개설하였습니다. (유튜브 '기독교대한감리회 청년회 전국연합회')
감리회 청년예배를 위한 좋은 강의를 업로드하였습니다.

청년들과 함께 들어주시고 예배를 세워주세요.

3. 청년예배 인증샷!!! 캠페인

청년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회복하는 마음으로

"우릴 사용하소서"를 불러주시고 인증영상을 찍어주세요(010-6759-2728)

영상을 보내주시면 기독교대한감리회 청년회 전국연합회 유튜브에 게시하고

바로 맛있는 청년간식을 싸드립니다!!!

4. 젊은 감리교인들의 예배 - 성령한국 화요워십

청장년선교회 전국연합회, 청장년선교회 서울연회+서울남연회 연합회,

청년회 서울연회+서울남연회 연합회 연합으로 젊은 감리교인들의 예배가 드려지며

감청에서도 협력합니다. 청년들이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5월 31일(목) 저녁 8시, 서울남연회 관악서지방 은정교회)

"다시 세워지는 청년예배"

8

연합회 조직, 이렇게 해주세요!

#청년연합회 조직하기

Step 1

각 지방 교육부에서 청년 멘토 목사님을 선정해주세요.

: 현재 청년연합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는 경우, 청년들 스스로 조직을 만드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청년부흥의 꿈과 비전이 있고 청년들과 소통할 수 있는 분을 세워주셔서 기도하면서 이 일을 현실화할 수 있는 청년지도목사님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Step 2

지방 청년들끼리 만나게 해주세요.

: 각 지방의 교육부에서 주관해 주셔서 지방의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세요. ex) 연합예배나 기도회, 축구대회, 찬양제, 세미나 등 크고 작은 자리를 마련하여 청년들이 만나 서로를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교류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청년들로 하여금 연합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세요.

Step 3

비전을 심어주세요.

: 지방청년들이 청년연합회를 통해 어떤 꿈을 꿀 수 있는지 조언해주세요.

구체적으로 청년들이 연합모임을 논의하고 서로의 비전들을 연합회에서 어떻게 녹여낼 수 있을 지를 고민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함께 연합의 꿈을 그려낼 수 있는 사람들을 엮어내어 구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세요.

Step 4

모임을 공식화해주시고 저희에게 알려주세요.

: 연합회구성에 대한 분위기가 무르익었다면, 이제 모임을 공식화해주세요.

지방에 소속된 각 교회의 청년임원들을 소집해주시고 총회를 열어주세요.

임원을 선출하고 비전을 가진 청년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직분을 주세요.

이렇게 구성된 청년리더들을 알려주셔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신 임원들이 열정을 다해 활동할 수 있도록 많은 격려가 필요합니다.

Step 5

활동에 필요한 자원을 지원해주세요.

: 처음 연합회 활동을 하게 되므로 연합회의 사업기획이나 진행, 예산 결정, 후원금 받기,

청년들 모아내기 등의 일들이 자연스럽게 진행되지 못합니다. 지방에서 청년들의 연합활동을 위한 예산을 책정해 주시고, 활동에 필요한 조언을 아낌없이 해주세요.

청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여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고 격려해주시고 적극적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주일 표준예배문

/ 본 예배 안은 2022 청년주일 모범 예배안입니다.
모범 예배안을 참고하시되 개교회의 상황과 재량에 맞게
청년주일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God is spirit, and his worshipers must worship in spirit and in truth.
John 4:24



조용한 기도	-----	다같이
예배로의 부름	-----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느도다	----- 사회자
찬송	----- 예배 혹은 청년을 주제로 한 찬양	----- 다같이
통성기도	-----	----- 다같이
대표기도	-----	----- 청년회장
성경봉독	-----	----- 청년회임원 중
특송	-----	----- 교회 성가대
말씀	----- 2022 청년주일설교 예문을 참고하여 청년들을 위한 말씀을 전합니다.	----- 담임목사님
결단의 기도	-----	----- 다같이
봉헌 및 특송	-----	----- 청년회 일동
안수기도	----- 청년들을 위한 축복의 안수기도	----- 담임목사님
봉헌기도	-----	----- 담임목사님
광고	-----	----- 사회자
폐회송	----- 찬송가 574장 혹은 그리스도의 계절(민족의 가슴마다)	----- 다같이
축도	-----	----- 담임목사님

“다시 세워지는 청년예배”

13

청년주일 표준예배문

예배만이 살길이다! (요한복음 4:5~30)

: 오늘 말씀은 이 목마름을 가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에게에는 몇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들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해결됩니다.

1) 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다섯이 있었다는 것은 그녀가 죄의 굴레에 매여 살았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죄는 인간에게 만족을 주는 것 같지만 참된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 처음에는 누군가와 서로 좋아서 같이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 못가 만족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게 결별했는데 또다시 누군가를 찾고 동거하는 일이 반복됩니다.
 이것은 죄의 중독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도 합니다.

13.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중독이라는 죄의 특징은 내 힘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생각이나 감정은 대부분의 경우 우리의 이성보다 강합니다. 말씀의 지배를 받지 않는 한,
 알면서도 끌려가는 것입니다. 죄를 억지로 참고 억제하는 것으로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됩니다.
 이 죄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될까요?

오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그 기쁨이 너무 빛나고 찬란하기 때문에
 죄가 주었던 즐거움들이 물거품처럼 여겨지는 것입니다.

이 여자가 왜 물동이를 내동댕이쳤을까요? 왜 동네로 뛰어갔을까요?

주님과의 만남에서 오는 기쁨을 주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재미의 종교가 아니라 기쁨의 종교입니다.

죄가 주는 즐거움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맛보게 될 때, 죄가 힘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위 은혜를 경험하면 세속적인 즐거움들이 다 시시해집니다.

죄를 이기는 힘은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입니다.

29.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여인은 너무나 당당해졌습니다. 담대하게 사람들에게 나아가 예수님을 전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동네사람들이 이 낙인찍혔던 여자를 청종했다는 것입니다. 상대도 안 해 줄 것 같았던 이 여인의 말을 듣고 다 예수님께 나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 가운데 이 여자를 높여주셨어요 인간관계도 다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아침하거나 선한 척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3) 의미가 없는 삶이었습니디.

여인의 삶은 살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는 것이었습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 듯 그렇게 살다가 늙어 죽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인격으로 만나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동네 사람 전체의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여자는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삶'이 되었습니다. 이 여자가 물동이를 뒤로 한 것은 옛사람을 뒤로 한 것입니다. 어떻게 여인의 말에 권세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정답은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 안에 예수님이 사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미 있는 삶이 된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 1)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 2)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 3)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23.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24.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찌니라

예배를 통해서입니다! 우리 인생에 주님 외에는 다른 해결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 된 인간을 만나주시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예배일까요?

15.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마음이 가난한 예배, 목마른 예배, 간절한 예배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하신 분입니다. 이 여인처럼 사모함이 있는 예배, 진실과 진지함이 있는 예배,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예배일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떤 죄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학생수양회에서 그것이 죄임을 깨닫고 공개적으로 회개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죄를 짓고 후회하기를 반복하다가 삶이 점점 피폐해졌습니다.

술과 게임중독에도 빠져 방탕한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에이즈에 걸려 삶을 포기할 지경에 이르고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방황하던 이 청년에게 목사님이 교회로 돌아오라고 권합니다.

그렇게 시작된 교회에서의 삶, 그가 한 것은 어떤 심리치로도 상담도 아니었습니다.

매일 매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예배의 삶을 계속하던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임재의 깊이가 깊어갈수록 차차 죄를 사랑하던 마음이 사라지고

진정한 회개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전혀 관심이 없었던 이성에 대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마침내 한 여자청년에게 사랑을 고백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기적 같은 도우심으로 결혼을 하고 아이들을 낳게 되었으며

현대의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질병의 치유까지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주신 음악적 재능을 통해 이제 예배 인도자로 섬기고 있습니다.

수많은 청년들에게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는 귀중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예배만이 살길입니다.

우리 개인도, 가정도, 이 나라와 민족도 대안은 없습니다.

오직 예배입니다.

청년들이여,

예배를 하찮게 여기지 마시다.

모든 예배에 가난한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갑시다!



감리회 청년회 전국연합회를 소개합니다!

1. 감리회청년회 소개

기독교대한감리회 청년회전국연합회는 웨슬리 목사님의 신앙을 본받고 교회의 부흥과 민족과 이웃의 아픔에 동참하며 이를 극복함으로서 참 신앙인으로 거듭 나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청년들이 모인 만남의 장입니다.

1897년 시작된 감리회 청년 운동은 신앙운동에서 시작하여 민족의 독립과 민주화 운동을 넘어 생명 평화운동에 이르기까지 시대적 요청과 부름에 충실하며 한편으로 교회의 양적, 질적 부흥과 성장에 숨은 일꾼으로서 소명을 다해 왔습니다.

2. 기독교대한감리회 청년회 전국연합회 제65회기

* 표 어: "화평함과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청년회"

* 성 구: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히12:14)

* 회 장: 김도원 * 부회장: 이성경 * 총 무: 이종화 * 서 기: 주원형 * 회 계: 정민주

3. 감리회 청년회의 비전

- 1)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따라 성결하고 고상한 생활을 함으로써 기독교적 인격을 계발하고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계의 진정한 평화를 이루도록 우리가 속한 감리교회를 통하여 실천합니다.
- 2)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가 다스리는 그 나라에 이바지하기 위해 모든 인류에 봉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3) 각 청년연합회와 연결하여 개체교회 청년회 연합사업을 지도계획 실행합니다.
- 4) 세계 감리회 청년운동 및 각 교단 청년회 전국연합회와 협력하며 세계 기독교 청년운동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God is spirit, and his worshipers must worship in spirit and in truth.

John 4:24



기독교대한감리회
청년회 전국연합회

65 Methodist Youth Fellowship of Korea

기독교대한감리회 청년회 전국연합회 /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육국
펴낸곳: 기독교대한감리회 청년회 전국연합회
연락처: 02)399-2170/2086, 010-6759-2728
주 소: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49 13층
kmcmymk@gmail.com / facebook.com/kmcmymk